

# 東아시아 文化에 있어서의 濟州島의 位置

## — 社會民俗側面 —

李 光 奎\*

### 目 次

- I. 序 言
- II. 濟州島 喪禮의 特性
- III. 濟州島 婚禮의 特性
- IV. 濟州島 祭禮의 特性
- V. 濟州島의 家系繼承
- VI. 結 論

## I. 序 言

濟州島가 韓半島와 日本列島를 사이에 둔 南支那海를 둘러싼 文化圈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濟州島는 南支那文化圈에 중심적 위치를 점유한다고 하겠다.

濟州島는 韓半島를 통해 日本과 沖繩으로 이어지는 大陸文化의 南下를 고려함에 重要한 位置에 있고 逆으로 沖繩과 日本 九州를 지나 北上하는 文化의 흐름을 고려할 때 濟州島는 重要한 위치에 있다.

濟州島는 南下하고 北上하는 文化波長이 지나가기 때문에 文化史研究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서라는 특성을 가져 濟州島 特有의, 그리고 고유한 文化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러한 東아시아 文化의 文化史的 研究와 濟州島 特有의 文化를 이해하기 위한 자료로 家族制度의 특성, 그리고 通過儀禮에서의 民族誌의 資料를 검토하고, 이것으로 인한 濟州島의 文化史的 重要성을 천명하려 한다.

---

\* 서울대 교수

## II. 濟州島 喪禮의 特性

婚禮와 喪禮는 우리 나라의 경우 冠婚喪祭라 하여 四禮중에 포함시키지만 婚禮와 喪禮는 사람이 一生에 통과하여야 하는 通過儀禮로 文化的 그리고 社會的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는 儒敎를 장려하면서 家族單位를 중요시하고 특히 冠婚喪禮를 敎化의 手段으로 생각하여 冠婚喪祭를 예서대로 시행하기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濟州島에서도 四禮가 지켜졌으나 陸地部와 다른 점이 있었다.

冠禮의 경우 陸地에서도 일반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社會的 지체가 높은 兩班家에서나 지켜져 왔었다. 그것마저도 舊韓末 단발령에 의하여 머리를 짧게 잘랐기에 冠禮는 쉽게 없어지고 말았다.

濟州島에서도 잘 지켜진 通過儀禮가 喪禮이다. 그러나 이 영역에도 陸地部와 다른 점이 많았다.

濟州島에서는 사람이 臨終을 하면 “호상”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습과 소렴을 말하며 陸地에서는 招魂과 사자상 차린 다음에 행하는 것이고 호상이란 말이 없다. 濟州島에서는 호상 후에 招魂을 하고 초혼한 속적삼을 지붕에 없지 않는 것이 特色이었다. 또한 사자상에 관한 자료를 보지 못하였다(崔在錫 1979 : 305).

陸地에서는 소렴에 이어 대렴을 하고 入棺을 하는데, 제주도에서는 호상 이후에 입관을 하므로 대렴이 없는 셈이다.

入棺 후 成服祭를 지내는 것은 濟州島와 陸地가 같으나 陸地에서의 成服祭는 一拜 單酌인데 濟州島에서는 三拜를 한다.

濟州島에서는 출상 전날 저녁에 日晡祭를 지내고, 장례에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功情을 베푼다. 그러나 陸地에서는 이런 것이 없고 상여놀이가 있을 뿐이다.

濟州島에서는 상여가 집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문 밖에서 發鞠祭를 행한다. 이곳의 발인제는 “발인고유”만 있다. 陸地에서는 마루 앞에서 발인제를 올리고 출상한다.

상여 나가는 순서도 濟州島에서는 특색이 있었다. 濟州島에서는 主婦가 혼

적삼을 흰보자기에 싸서 짊어지고 이것을 혼백이라 하며 상여 앞에 선다. 그리고 여자 상주들이 담포를 잡고 상여를 인도한다. 陸地의 경우 상여 앞에 가는 것은 소년 2명이 지고 가는 요요가 있고 혼백은 상자에 담은 실이나 사탕 팔달로 짊은 종이이다. 그리고 담포가 없다.

육지에서는 집에 돌아와 초우제 그리고 다음에 재우제 삼우제를 지낸다. 그러나 濟州島에서는 초우제를 봉분 앞에서 지내고 재우제나 삼우제를 집에서 지낸다. 따라서 濟州島에서는 冢土祭가 따로 없는 것이 된다.

朔望祭 卒哭祭 大小祥 禫祭는 濟州島나 陸地나 차이가 없다. 濟州島 喪禮에서 특이한 것의 하나가 濟州島의 喪服은 直系親에 한하며 9種 親族에 따르는 五服制度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한편 濟州島에서는 喪服을 입는데 있어서 出嫁女와 在室女 사이에 구별이 없고 再嫁한 母에 대하여서도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었다(崔在錫 1979 : 317).

濟州島에서는 陸地의 喪禮形式을 많이 취하였으나 호상과 招魂과 같이 순서를 바꾸어 하는 것도 있고, 혼백과 같이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있으며, 사자상과 같이 거행하지 않는 것이 있고, 발인제나 초우제와 같이 대치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喪禮의 경우 비교적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이 된다.

### Ⅲ. 濟州島 婚禮의 特性

冠婚喪祭에서 濟州島가 가장 특성을 보이는 영역이 婚禮이다. 陸地에서 행하는 傳統的인 婚禮는 間名부터 시작하여 六禮의 과정이 있지만 婚禮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奠雁之禮, 交拜之禮 그리고 合巹之禮이다. 전안지례는 新郎이 목안을 상 위에 놓고 北向四拜를 행하는 것이다. 이곳은 新郎 혼자 작은 상 앞에서 행하는 禮라 小禮라고도 한다.

교배지례란 新郎이 大禮床 東쪽에 서고 新婦가 西쪽에 서서 新婦가 先二拜하고 新郎이 答一拜를 하며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禮이다. 합근지례란 신랑 신부가 제자리에 앉아 술잔을 각기 두 잔을 마시고 셋째 잔을 청실 홍실에 연결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다. 교배지례와 합근지례가 大禮床 앞에서 행하여지기에 大禮라 한다.

濟州島의 경우 小禮도 없고 大禮도 없는 것이 특성이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陸地部の 南海岸이 하나의 中間地帶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陸地部에서는 小禮 大禮가 모두 행하여지고 南海岸 一帶에서는 小禮만 행하여 지며 濟州島에서는 小禮도 大禮도 없는 것이다(李光奎 1985: 179).

小禮만 행하여지는 곳에는 玉女峰傳說이 분포되어 있는 地帶로 이곳에서 大禮를 행하면 玉女의 심술로 新郎 新婦가 해를 당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海洋性 文化가 大禮를 수용할 수 없는 要素가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同一한 韓文化圈에 속하면서도 濟州島는 小禮와 大禮를 수용할 수 없는 文化的 identity를 갖고 있는 것이다.

#### IV. 濟州島 祭禮의 特性

冠婚喪祭에서 濟州島가 갖는 특색의 하나가 祭禮이다. 祭禮는 祖上을 祭祀로 봉사하는 것으로 儒敎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禮節이며 倫理의 구체적인 실천사항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朱子家禮를 수용하였으나 朱子家禮에 기재된 八禮를 모두 행하지 아니하며 一般人은 忌祭, 茶禮 그리고 時祭의 三禮만을 행한다.

忌祭, 茶禮는 집안에서 四代奉祀로서 행하는 것이나 집집이 祭需와 祭典이 다르고 時祭는 묘소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門中の 有無에 따라 그리고 門中の 전통에 따라 행하는 바가 다르다.

濟州島의 경우 祭典, 祭需, 祭禮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地方에서 볼 수 있는 地域的 차이와 다른 것이 없다.

濟州島가 특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祭祀의 分割에 있다. 陸地의 定型은 祭祀는 不可分이며 長子인 宗孫에게만 계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4代를 봉사하는 宗孫은 高祖父母, 曾祖父母, 祖父母, 父母의 4代 8位의 忌祭를 모신다. 그리고 曾祖父의 弟인 從曾祖는 그의 直系宗孫이 모시고 祖父의 弟인 從祖는 그의 直系從孫이 모시며 父의 弟인 叔父는 그의 直系宗子인 四寸弟가 모시는 것이다. 이에 따라 韓國에는 父를 中心한 彌宗, 祖父를 中心한 祖宗, 曾祖父를 中心한 曾祖宗, 그리고 高祖를 中心한 高祖宗이 있으니 高祖宗의 범위를 堂內라 하고 4個의 小宗과 1個의 大宗을 합하여 5宗이라 하며 이것을 五宗法이라 한다.

濟州島를 위시한 진도 등 南海岸과 江原道 山間地方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五宗法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祭祀를 子孫들이 分割하여 거행하는 것이다. 祭祀를 子孫들이 分割하는데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것을 종합하면 두가지 유형을 볼 수 있다. 편의상 하나를 진도형 그리고 하나를 濟州型이라 하겠다.

진도형은 父母의 祭祀를 아들들이 分割하여 거행하되 父는 長男이, 母는 次男이 담당하되 母의 경우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母는 生前에 祭사자를 지정하거나 末子가 거행하기도 한다.

濟州型이란 진도형보다 더 祭사의 平均화에 중점을 두어 형제들이 祖上의 祭사 하나 또는 둘을 고르게 나누는 것이다. 이 곳에 父母, 祖父母, 曾祖父母, 高祖父母의 모든 位를 고루 후손들이 나누어 祭사없는 집이 없이 고루 나누는 것이며 宗孫은 가능한 한 直系 最高祖上을 祭祀하는 것이다(竹田且 1984 : 49).

祭祀를 다시한번 정리하면 陸地部에서는 祭祀의 長子單獨繼承을 하며 中心部에서 먼 곳에서는 祭祀가 諸子에게 分割되며 진도형은 陸地型과 濟州型의 中間적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祭祀와 관련된 文獻研究에 의하면 祭祀의 輪回가 있었다. 말하자면 父母의 祭祀를 아들 딸들이 돌아가면서 거행한 것이다. 현재 民族誌에서 祭祀의 輪回는 보고된 것이 없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文獻資料나 民族誌 資料에 의하면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다. 이를테면 옛날에는 祭祀의 輪回가 많이 행하여지다 다음 단계로 祭祀의 고정화가 진행되면서 陸地部에서는 철저한 長子中心의 고정화가 이루어졌으며 中心部에서 먼 濟州島에서는 均分의 原理를 저변에 두어 濟州型 分割式을 발달시켰으며 진도등 변방은 濟州型보다는 中心에 가까운 類型을 이룬 것이다.

이러한 祭祀分割에 기초한 가설은 婚禮와 喪禮에도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V. 濟州島의 家系繼承

濟州島의 文化的 特性은 보다 분명히 볼 수 있는 영역이 家族制度이며 특히 家系繼承이라 하겠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포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韓國은 直系家族을 原則으로 하는 家族制度를 갖고 있다. 直系家族이란 一世代 一夫婦만을 갖는 것으로 결혼한 아들 多數를 거느리는 擴大家族과 原理上 차이가 있다. 直系家族은 한 아들 특히 韓國의 경우 長男과 同居하기에 次·三男은 결혼후 조만간 分家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큰아들과 부모로 이루어진 本家와 次·三男이 독립하여 이룩한 分家가 있다.

이러한 直系原理에 의하여 財産相續이 長子優待不均等相續이 된다. 財産相續에서 長子를 우대하는 이유는 長子가 侍父母하고 奉祭祀하며 接賓客을 하기 때문이다. 次·三男이 分家하는 時期는 家内事情, 地方風俗, 時代潮流 등에 의해 달라진다.

우리나라 家族制度에서 특색이 있는 것은 父母와 同居하는 長男 夫婦가 언제 어떻게 家長權을 繼承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리나라에는 3種의 類型이 있다. 하나는 西南型이고 하나는 東南型이며, 하나는 濟州型이라 하겠다.

西南型이란 韓半島 西南部에 분포된 것으로 全羅南北道, 忠淸南北道 그리고 京畿道까지 분포되어 있다. 西南型의 특성은 父母가 生前時에 家長權과 主婦權을 아들 며느리에게 계승하지 않는 것이다. 父母가 노쇠하여 가장과 주부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아들 며느리가 대행을 하지만 인계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西南型은 終身型이라 하겠으며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방의 사용이다. 부모는 죽은 후에야 안방에서 나오고 사랑방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東南型에서는 父母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아들 며느리에게 살림을 물리고 은퇴를 한다. 따라서 東南型은 隱居型이라 하겠다. 이것은 慶尙南北道에 분포되어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른바 "안방물림"이다. 안방을 점유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며느리에게 안방을 물려주고 건너방으로 물러 앉는다. 이때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고 안방물림의 증표로 열쇠꾸러미를 며느리에게 준다.

안방물림은 분명하지만 사랑방을 사용하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방을 물려주고 건너방에서 부인과 동거하는 사람도 있고 큰 사랑방 뒤에 작은 사랑방을 만들어 기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방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도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隱居型은 日本의 것과 달리 女子는 분명하되 男子는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은거형이 있는 곳의 가옥의 특성은 안방과 건너방이 크거나 장식에 차이가 있으며 은거가 없는 서남형지역의 가옥에는 안방과 건너방에 차이가 없어 안방물림을 하지 않아도 섭섭지 않은 것이다.

濟州型은 終身型도 아니고 隱居型도 아니며 獨立型이라 하겠다. 濟州島의 경우 결혼식을 거행한 며느리가 시집으로 오는 것은 시집에서 완전한 독립된 취사를 할 수 있을 때이다. 濟州島에서는 말하자면 결혼한 여자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다른 독립된 취사단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주부권의 인계고 계승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濟州型을 陸地 사람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家族의 定義부터가 濟州型은 陸地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테면 家族은 結婚과 血緣으로 연결된 구성원이 同居集團과 同財集團을 이루는 것이라 하며 同財集團임을 표시하는 것이 같은 속에서 밥을 먹는 것이라 할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별개의 가족으로 볼 것이냐 하나의 가족으로 볼 것이냐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家系繼承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며느리가 獨立型이기 때문에 울타리 안에 거주하건 울타리 밖에 거주하건 별 문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濟州島에서는 長子를 優待하는 相續制度가 아니라 비교적 諸子均分에 가까운 相續을 한다.

이에 따라 濟州島에서는 日本의 隱居制度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몇 가지 亞類型이 있다. 하나는 결혼한 長子부터 分家하여 나아가는 형이고, 하나는 결혼한 長子에게 本家를 주고 아버지가 未婚子女를 데리고 分家를 형성하여 가는 것이다. 그리고 최후에 父母가 모든 아들을 결혼시키고 長男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長子分家나 父母分家 그 자체만 보면 日本의 隱居의 諸類型과 흡사하다. 그러나 濟州島의 경우 그 分家類型이 어떠한건 家族의 中心的 理念을 상징하는 祖上祭祀가 長子에게로 계승되기에 日本型이 아니라 韓國型에 속하는 것이다.

濟州型에 흥미로운 것은 결혼한 女子가 독립된 經濟單位를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女子의 평생 계속된다는 것이다. 濟州島에서는 老父母가 노쇠하여도 며느리가 취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만 남아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지 않는다.

濟州島와 유사한 며느리의 독립된 경제단위가 日本의 八丈島에서 보고되었

다. 八丈島에서는 老父母中 한 명이 사망하면 며느리가 남은 분을 돌보아 준다. 그러나 濟州島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돌보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만 남아도 돌보지 않는다. 따라서 濟州島는 八丈島보다 女子中心的 獨立性이 강하고 분명하다 하겠다(浦生正男 1970 : 49).

## VI. 結 論

濟州島의 家事獨立型이 日本의 八丈島와 유사하다 하여도 地理上 濟州島와 八丈島를 연결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家事獨立型에 한하여 말하자면 이것은 도서지방이라는 특수한 자연조건이 이러한 유형을 갖게 한 것이고, 그것이 우연히 濟州島와 八丈島에서 보고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오히려 濟州島의 家系繼承의 類型이 終身型보다 隱居型에 유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濟州島는 韓半島의 西南部와 日本列島의 西南部, 이를테면 日本의 隱居制度가 발달한 地域과 같은 領域內에 位置한다 하겠다.

이론의 비약이 되겠으나 韓半島의 直系原理와 日本의 直系原理에는, 韓國이 長子로 고정된 直系라면 日本은 後繼者를 選定하는 直系라고 대비시킬 수 있다. 長子고정형 直系는 오히려 韓半島에서 수직으로 沖繩으로 이어져 이곳에 門中이 발달한다. 韓半島에서 沖繩으로 이어지는 直系原理 線上에 濟州島가 位置하게 된다.

그러나 濟州島는 韓半島에 속하는 親族制度를 가졌으며 韓半島에서 밀려오는 父系原理의 制度에서 南海岸 地帶를 하나의 단층지대 또는 하나의 中間地帶로 하면서 大陸의인 요소를 나름대로 소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韓國의 古型을 계승하면서 제주도 특유의 제도를 유지하여 가는 것이었다.

家族制度和 親族制度 그리고 冠婚喪祭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濟州島의 文化史의 特性을 보다 선명하게 하여 주는 것이 玄容駿의 巫俗研究라 하겠다.

濟州島는 韓半島, 日本列島, 沖繩群島를 하나로 하는 大文化圈에서 특유의 위치가 있고 韓半島에서 沖繩으로 잇는 中文化圈, 韓半島 西南部와 日本의 西南部로 잇는 中文化圈, 그리고 韓半島와만 연결되는 小文化圈 특히 韓半島 南半部와만 연결되는 小文化圈 內에 濟州島는 중요한 位置를 점유하고 있다.



東아시아 文化에 있어서의 濟州島의 位置 - 社會民俗側面 -

濟州島는 이러한 諸文化圈과 관련되는 文化要素를 공유하여 文化圈的 重要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화롭게 포용하고 자기의 특성을 간직하는 文化的 identity를 간직한 특색있는 섬인 것이다.

## 參 考 文 獻

- 金榮敦：1970, “濟州島 海女研究 序說”, 省谷論叢 1, 428~437.
- 李光奎：1975, 韓國家族의 構造分析, 서울, 一志社.
- ：1985, 韓國人의 一生, 서울, 螢雪出版社.
- ：1990, 韓國의 家族과 宗族, 서울, 民音社.
- 李杜鉉·張壽根·李光奎：1991 韓國民俗學概說, 서울, 一潮閣.
- 李昌基：1987, “濟州島 家口의 크기”, 耽羅文化 6, 179~202.
- 全京秀：1977, “珍島 下沙美의 儀禮生活：祖上崇拜儀禮의 生態學的 機能을 中心으로”, 人類學論集 3, 35~74.
- 조혜정：1982,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 韓相福 編, 韓國人과 韓國文化, 143~168.
- 秦聖麒：1975, 南國의 民俗 上下, 서울, 敎學社.
- 崔在錫：1979, 濟州島의 親族組織, 서울, 一志社.
- 玄容駿：1973, 濟州島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70~85.
- ：1986, 濟州島 巫俗 研究, 서울, 集文堂.
- ：1989, “濟州島民의 信仰體系와 巫俗”, 濟州島研究 6, 3~8.
- 竹田旦：1970, 家族をめぐふ民俗研究, 東京, 弘文堂.
- ：1984, 韓國にあけふ祖先祭祀の分割について”, 民俗學評論 24, 32~55.
- 尹藤亞人：1977, 韓國村落社會におけふ契全羅南道珍島農村の事例, 東洋文化研究所紀要 71, 167~230.
- 浦生正男：1970, 日本の傳統的家族の一考察, 民族學かうみた日本, 49~76.
- 中根千枝：1973,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東京, 東大出版會.
- 佐藤信行：1973, 濟州島の家族—○村の事例かう, 中根千枝 編, 韓國農村の家族と祭儀, 108~146.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1992, A Comparative study on the Family Consciousness between Korea and Japan. Kitakyushu International Conference Center.